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5장 6절-13절

설교제목 :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우리는 흔히 바라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위기, 혹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 빨리 그 고난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있기에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고난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인 나쁜 선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팔일을 머물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이튿날 바울을 불러 재판을 열었습니다.(6절)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서둘러 연 이유는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 즉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내려왔기 때문입니다.(7절) 베스도는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는 바울을 직접 고발하였지만, 이번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처럼 유대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9절)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문을 받겠느냐**는 제의를 합니다.(9절) 이러한 요구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요구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유대종교지도자들이 원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듣자마자, 베스도가 재판관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이사인의 재판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고,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로마시민의 강력한 특권을 내세워 돌파합니다.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판결해 주도록 상소한 것입니다.(10-11절) 결국 베스도는 관례를 따라 배석자들과 상의를 한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12절)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판결이 갖는 의미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구류의 상태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잠언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삶에 변수가 생겨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년이란 세월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죄수의 신세로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2년이란 감옥의 시간은 바울에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하루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구류의 상태에서 로마로 가는 안전한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 55:8-9**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

각보다 높음이니라” . 우리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한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생이 내가 계획한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선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믿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까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해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주의 뜻이 내 뜻과 맞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도하심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계획은 우리의 몫이지만,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 전체를 구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캄캄하고 안개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길로 가면 될지 완벽한 지도를 그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매일 변화무쌍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판결해주소록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결국 바울의 2년 구류의 시간은 로마로 안전하게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